

전통시장 아케이드 절반이 안전 미흡·불량

시설안전공단 3년간 점검... 전국 321곳 보수 판정

광주·전남 15곳 '미흡'... 보수진행 전체 6곳 불과

정부가 예산 수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절반 이상이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고 대부분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청이 새누리당 광대훈 의원에 제출한 전통시장 아케이드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광주 양동시장 등 전국 328개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을 점검한 결과 불량과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이 각각 19개(5.8%), 161개(49.1%)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안전점검 결과는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시설에 전반적으로 결함이나 손상이 생겨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 미흡이며 긴급 보수·보강을 해야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가 불량이다. 보통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간단한 보수는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 보통은 141개(43.0%), 양호는 7개(2.1%)로 각각 집계됐다. 아케이드 229곳(설치비용 집계 불가능한 99곳 제외)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639억원(국비 1502억원, 지방비 977억원, 민간 160억원)에 달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013년 완공된 광주 말바우시장, 목포 향동시장, 영광 고추밭시장 등이 미흡판정을 받았으며 2014

년 광주 양동시장과 양동수산시장, 나주 다사갯골전통시장, 남평5일시장, 목포 중앙식료시장, 완도중앙시장 등 9곳이 미흡 판정을 받고 금일읍5일시장은 보통 판정을 얻었다.

2015년에 새로 만들어진 고흥전통시장(어물전)과 녹동전통시장도 미흡 지적을 받았다. 또 최근 완공한 완도중앙시장 역시 점검결과 미흡 판정으로 지적됐다.

보통 이하 판정을 받아 보수를 해야 하는 전통시장 321개 가운데 실제로 보수가 진행된 곳은 6곳(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량 판정을 받은 19곳 중 안전보수를 한 곳은 4곳에 그쳤다.

광대훈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아케이드 설치 5년 미만의 경우에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실설계, 부실시공에 의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통보되면 지자체장은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해야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대훈 의원은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보수비용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광 의원은 "정부는 불량으로 판정된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보수작업을 긴급히 실시해야 한다"며 "설치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 이종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5.71 (+9.93)
- ↓ 금리 (국고채 3년) 1.34% (-0.01)
- ↑ 코스닥 674.51 (+7.87)
- ↑ 환율 (USD) 1120.60원 (+2.50)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 개시

1조원대 예상...노조 "책임있는 자본 희망" 성명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시작됐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에 이어 금호타이어까지 재인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 스위스(CS)증권은 20일 채권단(주주협의회)이 보유한 지분 42.01%에 대한 매각 공고를 발표했다. 매각 방식은 공개 경쟁입찰이다.

CS 측은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요약투자설명서와 비밀유지확약서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거래 절차와 일정 등은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투자자에게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가격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분가치(6500억~7500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20~30% 정도를 더한 수치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11월 중순 예비입찰이 진행되고 본입찰은 내년 초에 실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일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박 회장이 국내의 경쟁자를 제치고 금호타이어를 다시 품에 안을지 여부다. 박 회장은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같

은 가격만 제시해도 무조건 인수할 수 있는 구조다.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주력 계열사들이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금호타이어 인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호타이어의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558억원이다. 영업이익이 안 좋아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그룹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계열사로 꼽힌다.

IB 업계 관계자는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인수 의지가 워낙 강하다. NH투자증권 등 우호적인 금융회사들이 다시 나선다면 자금 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회사 매각 공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반드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회사 매각과 관련해 누가 회사를 인수하는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존권(노조·단협승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매각 이후 금호타이어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성과 능력 있는 자본을 희망한다"며 "해외매각도 반대하지 않지만 쌍용자동차의 경우와 같은 먹튀 자본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전남 수출입기업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광주상의 다음달 7일까지

광주상공회의소는 다음달 7일까지 수출입기업과 예비 무역인과의 만남의 장인 '2016 광주·전라 수출입기업 채용박람회' 행사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채용박람회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광주본부세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조선대 등 지역7개 수출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무역 및 자유무역협정(FTA) 분야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4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인력 미스매치와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개 이상의 기업체와 200명 이상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면접과 채용, 취업정보 제공 등의 주행사와 취업관련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사전에 구직자와 1대1 매칭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재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 현장 채용 계획이 있는 30여개 기업에게는 행사 당일 면접부스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채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는 방문 구직자들의 취업준비와 진로 탐색을 위해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입사서류 및 면접클리닉, 인적성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동 주최기관의 홍보관과 창업컨설팅관도 선보인다. /김대성기자bigkim@



기아차 여성 힐링 문화교실 20일 '기아차 광주공장, 여성 힐링 문화교실'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아차 광주공장 연구동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여성 힐링 문화교실은 오는 29일까지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공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2500만원을 후원했다. <기아차 제공>

커지는 온라인 중고차 시장...늘어가는 불법 매매

허위 성능 점검·등록번호판 부정 사용 등 광주 5년간 200건

중고차 불법매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 지역에서도 최근 5년 새 적발건수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서 덩달아 불법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구)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광주 지역에서만 268건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1535건이며 경기(394건), 인천(303건) 다음으로 많았다. 전남은 23건으로 광주 지역 적발 건수의 10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기별로는 2011년과 2012년 각 31건과 21건에서 2013년 127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4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 한 해 적발 건수에 달했다.

유형별로 성능 점검을 허위로 한 경우가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번호판

부정 사용 건수가 81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5건, 이전 등록비 과다 수령 22건 등이다.

정용기 의원은 "인터넷에서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불법매매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고차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세종 0건과 경북 2건, 강원(4건), 충북(5건) 등 단속 건수가 극히 적어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외면 받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 없어도 가능...광주·전남 가입률 5% 불과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상품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 관심이 낮아졌다고 조사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광주·전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1만4317명으로 집계됐다. 광주가 806명, 전남은 6248명이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부나 대학생처럼 공식적인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지역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3년 9598명, 2014년 1만849명, 2015년 1만270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가입자 수도 2013년 17만7천569명,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7월 현재 27만6천63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국 임의가입자 수에서 차지하는 이 지역 임의가입자 비율은 5%대에 머물러 임의가입에 대한 지역 관심이 아직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광주·전남 임의가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5.4%에서 2014년 5.3%, 2015년 5.2%, 올해는 5.1%로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공단 광주본부 관계자는 임의가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